



삼성 Premium Picks

주간 글로벌 포트폴리오

: 2023년 투자전략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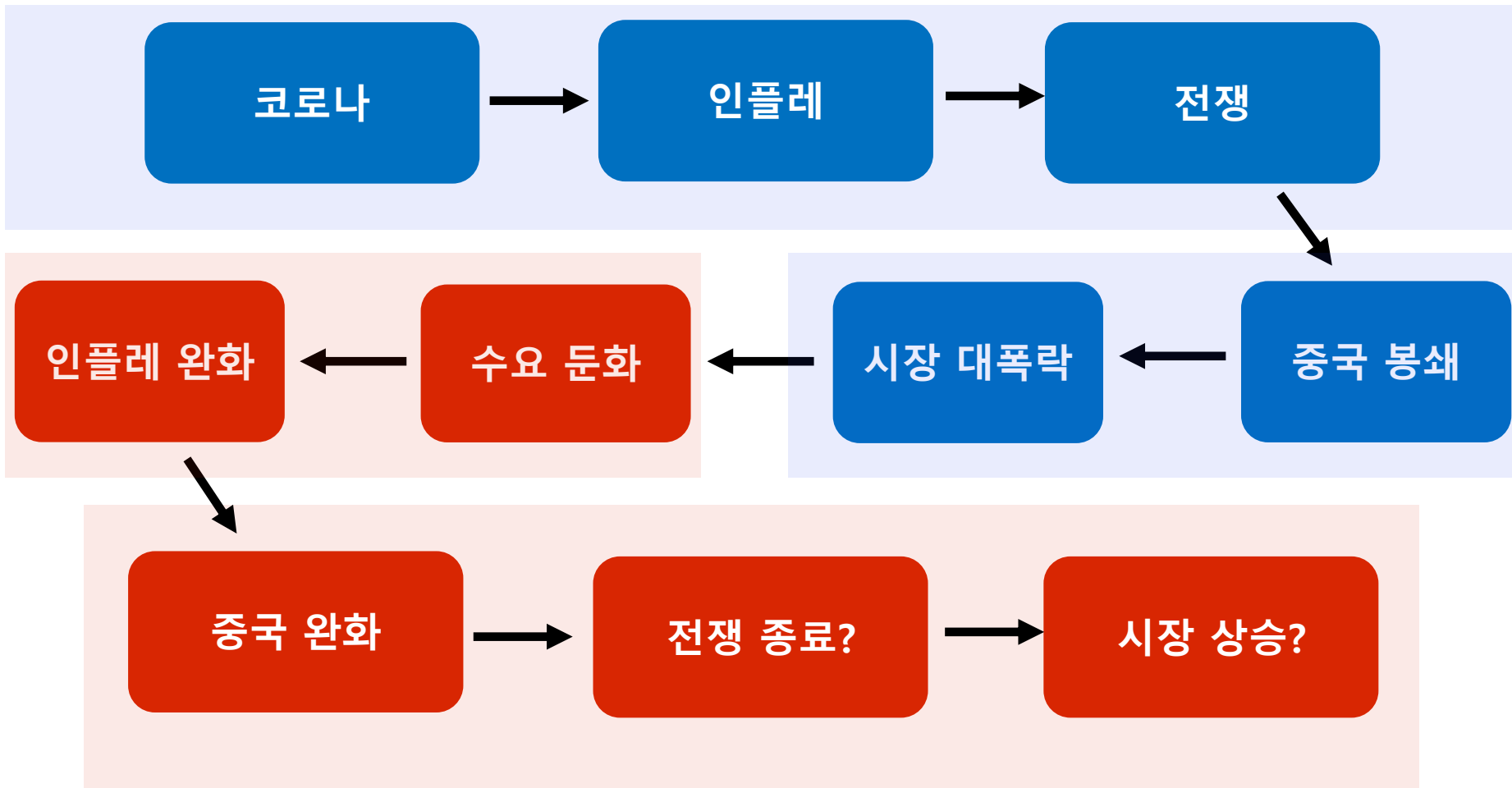
리서치센터 글로벌주식팀 | 2022년 12월 8일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투자권유의 적합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삼성증권

2023년, 투자의 키워드가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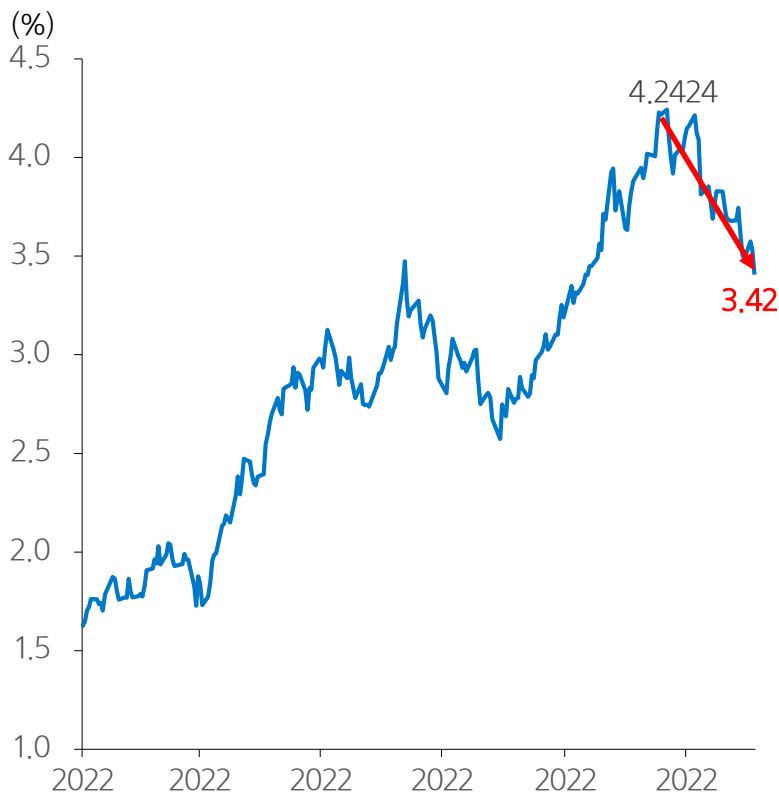
2023년, Unwinding의 시작



2023년, 투자의 키워드가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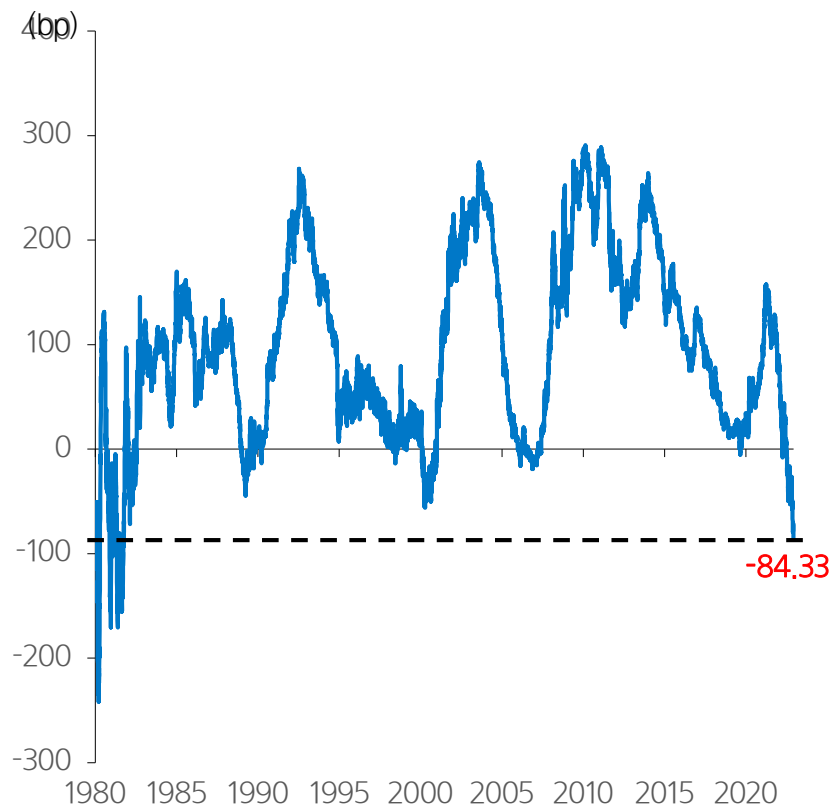
화두는 22년의 인플레이에서 → 23년의 리세션/디플레로

인플레 우려로 한창 치솟던 미국채 10년물,
이제는 내년의 리세션 우려를 내비치는 중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0년-2년물 스프레드 역전폭도 80bp 중반으로
1981년 이후 최대 수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2023년, 투자의 키워드가 바뀐다

2023년 바뀐 키워드, 투자 전략은?!

1. 채권, 가장 좋은 헷징 수단

2. 향후의 선봉장은? 낙폭과대주!

3. 위기의 버팀목은 든든한 현금흐름의 배당주

미국 채권을 간접 투자하는 쉬운 방법! - 대표 채권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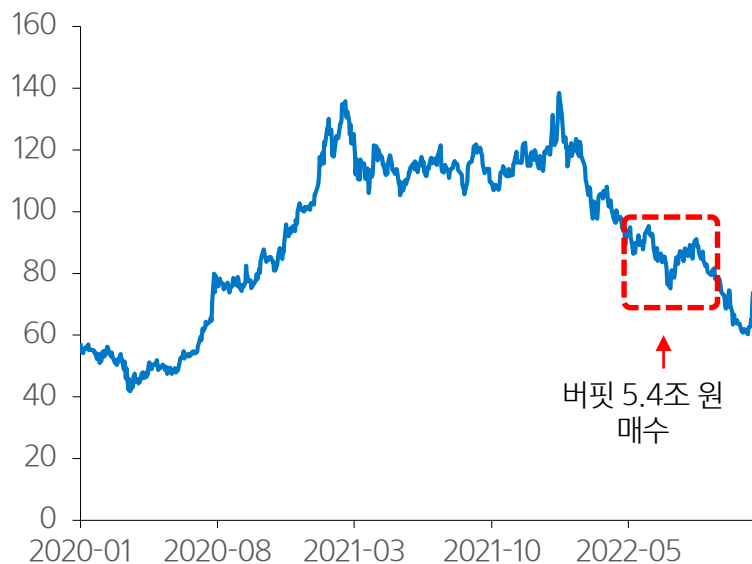
- 참고로 아래 5종목은 모두 미국 채권을 투자하는 ETF

BND (채권 종합)	Vanguard Total Bond Market ETF 국채, 회사채, MBS, 지방채 등을 포트폴리오로 편입한 종합 채권 ETF (듀레이션 6.5)
GOVT (장기채)	iShares U.S. Treasury Bond ETF 미 정부가 발행한 만기 1년 이상의 미국채 편입 (듀레이션 6.3)
TLT (초장기채)	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 미 정부가 발행한 20년 이상의 장기 국채 편입 (듀레이션 18)
VGSH (단기채)	Vanguard Short-Term Treasury ETF 만기 1~3년의 미 국채 편입 (듀레이션 1.9)
SHV (단기채)	iShares Short Treasury Bond ETF 1~12개월 만기 미 국채 에 투자(듀레이션 0.3)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지금 버핏의 생각은?

- 버크셔 해서웨이 3Q 13F 공시, TSMC 5.4조 원, 옥시덴탈 2.2조 원 등 약 12.5조 매입 내역 공개
- 옥시덴탈, 셰브론 등 에너지 비중 확대, US Bancorp 및 NY Mellon 등 은행 비중 축소
- 3분기 중 애플 매매는 없었으나 포트폴리오 내 애플 비중 4Q21 47.6% → 3Q22 41.8%

버크셔의 3분기 13F 공개, 집중 조명된 TSMC 매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악재뿐인 매크로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듯한 버크셔

Stock	Shares Held or Principal Amt	% of Portfolio	Rank	Change in Shares
AAPL	894,802,319	41.76	1	No Change
BAC	1,010,100,606	10.30	2	No Change
CVX	165,359,318	8.02	3	↑ 3,919,169
KO	400,000,000	7.57	4	No Change
AXP	151,610,700	6.91	5	No Change
OXY	194,351,650	4.03	6	↑ 35,801,921
KHC	325,634,818	3.67	7	No Change
MCO	24,669,778	2.03	8	No Change
ATVI	60,141,866	1.51	9	↓ 8,259,284
TSM	60,060,880	1.39	10	↑ 60,060,880

자료: Whalewisdom, 삼성증권

좋은 주식보다는 빠진 주식에 주목!

1. 그간 이어진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충격의 가장 큰 피해주

2. 낙폭과대로 역사적 저점 수준의 밸류에이션까지 하락

3. 경기 불황기에 시장 점유율 확대

4. 꾸준한 이익/현금흐름 창출력을 보유

5.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

배당주 포트폴리오의 가치 부각

1

위기의 버팀목,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

2

인플레이션 부담,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

3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 꾸준한 필수소비재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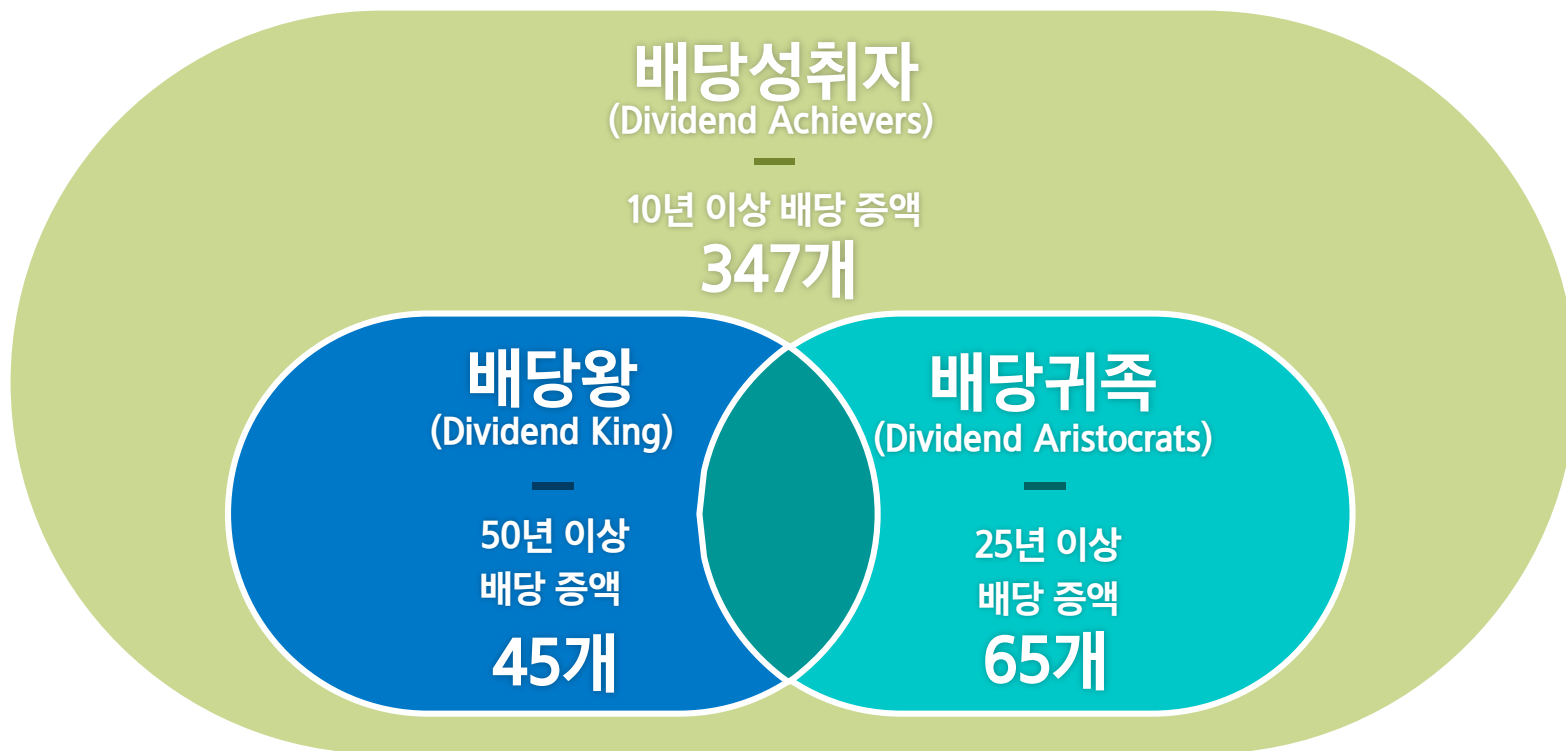
‘양호한 현금 흐름, 높은 가격 결정력, 견조한 수요’의 교집합

배당주 포트폴리오

2023년 투자전략 - 위기의 버팀목 배당주

미국 배당주, 급이 다르다

배당 기간별 분류에 따른 배당왕, 귀족, 성취자



주식투자 이것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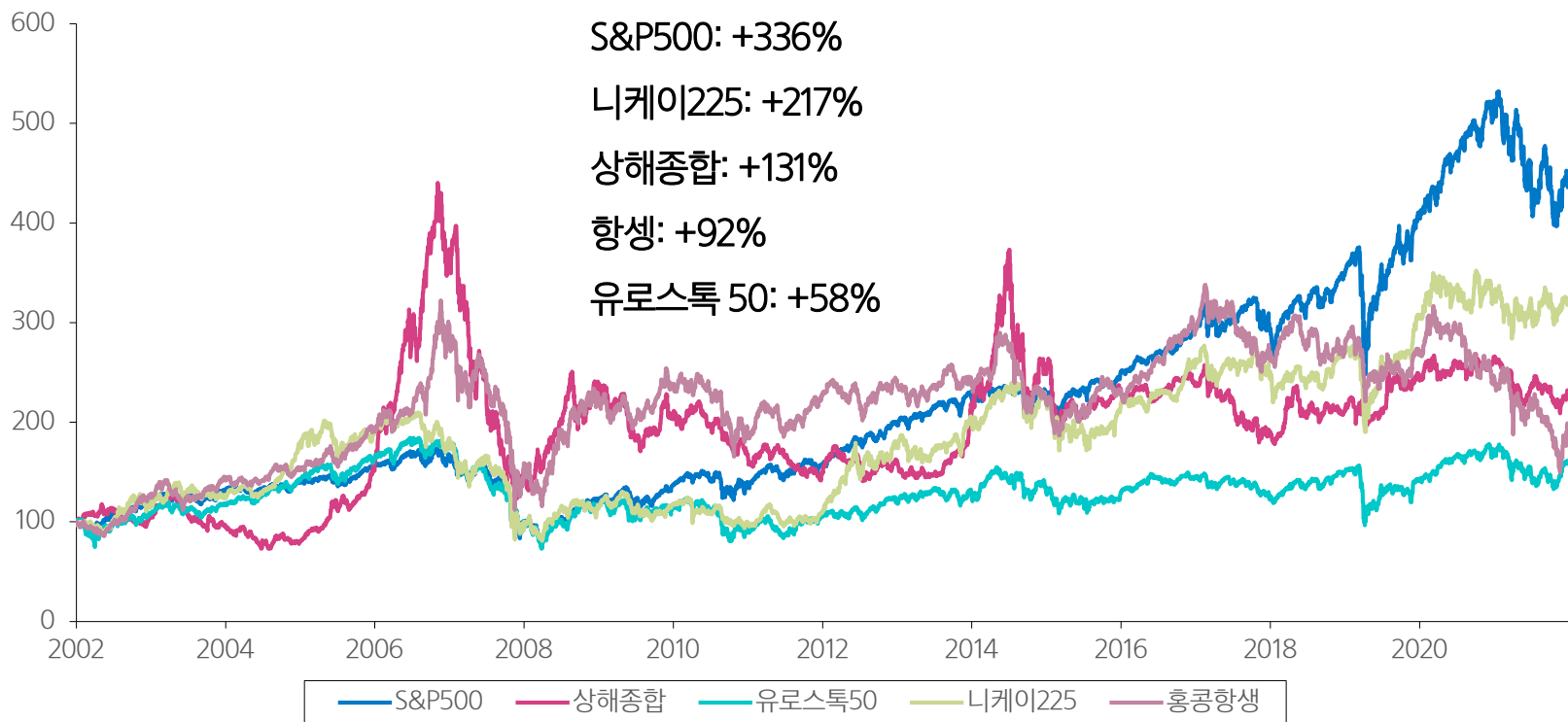
주식 투자의 십계명!

1. 결국 기승전 미국
2. 막연한 장기투자는 정답은 아니다
3. 변화하는 시장, 투자에도 시대가 있다
4. 예상할 수 없다면, 적응하는 기업 찾자
5. 알려지지 않은 위험, 헷지는 필수
6. 현대인의 필수품, 투자의 세상에서 떠나지 말자
7. 비관은 금물, 언제나 해결책은 있다
8. 아무도 믿지 말자, 결국 자신의 판단이 중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국 미국

지난 20년간 다른 국가보다 부진한 적은 있었지만, 결국은 미국의 압승

(2002.12.12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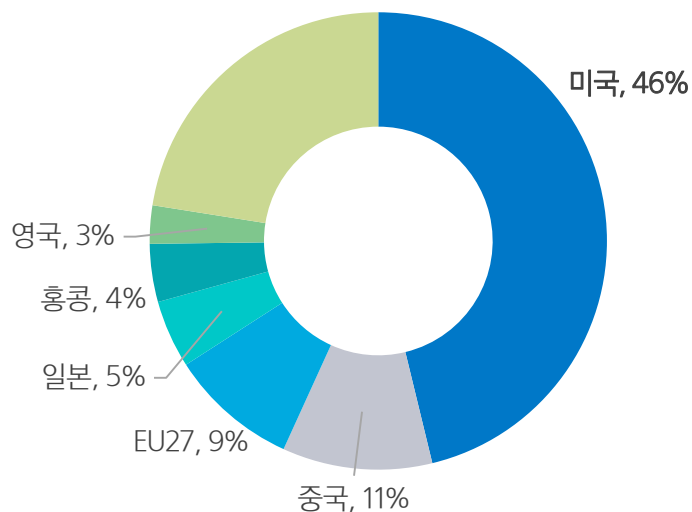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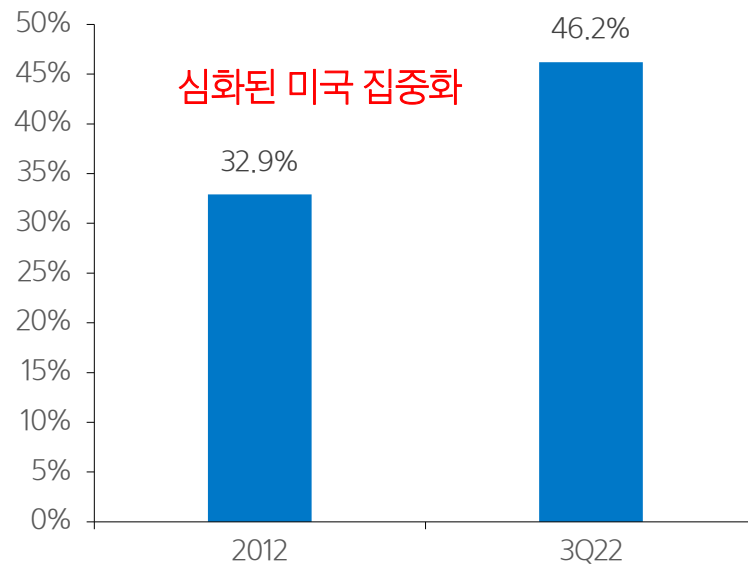
전 세계 시가총액의 절반은 미국,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6.2%
- 심화되는 미국 중심 주식 시장 → 2012년 대비 13% 가량 증가

전세계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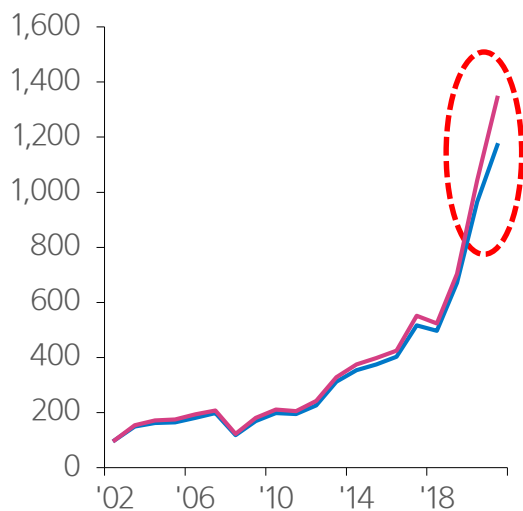
미국 시가총액의 비중 변화



미국시장, 이해관계의 일치 '대주주 = 소액주주 = CEO = 임직원'

나스닥 지수 VS 시가총액

(2002.12.31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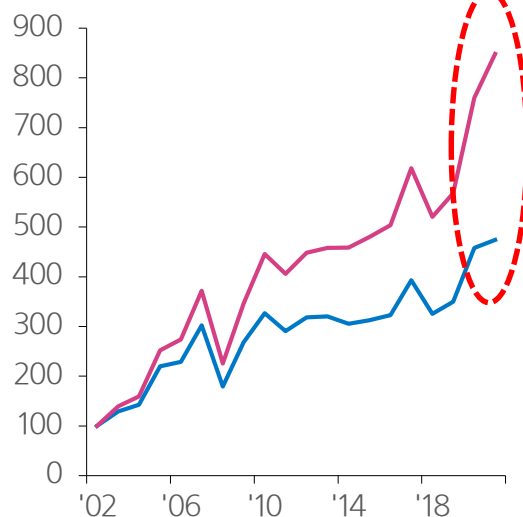


— NASDAQ — 지수 시가총액

자료: Bloomberg

KOSPI지수 VS 시가총액

(2002.12.31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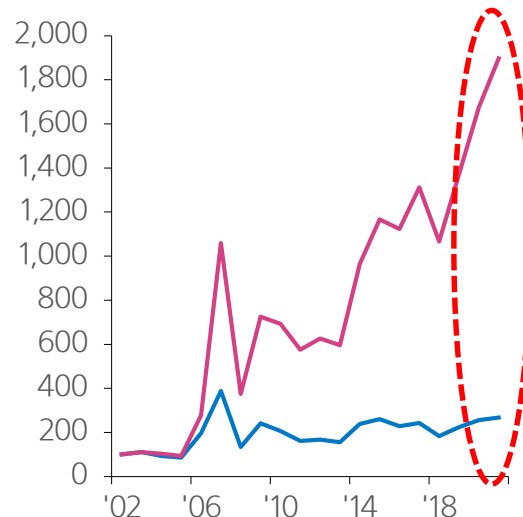


— KOSPI — 지수 시가총액

자료: Bloomberg

상해종합지수 VS 시가총액

(2002.12.31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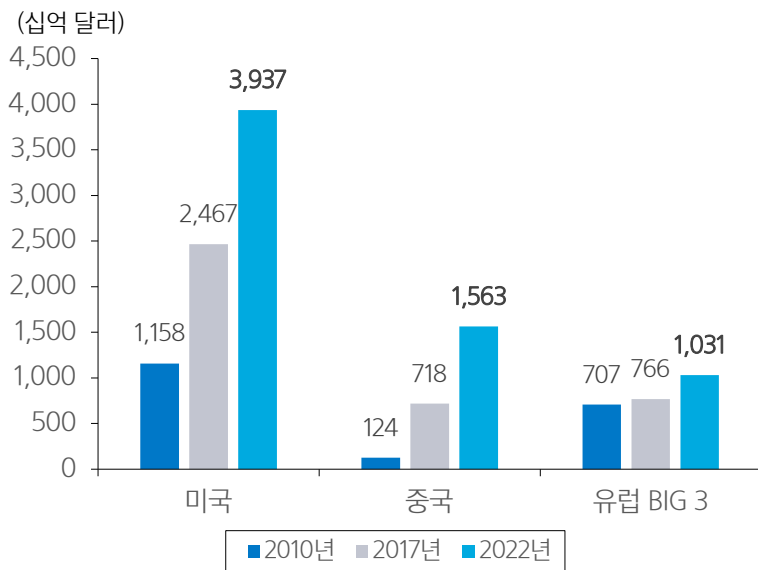
— 상해종합지수 — 시가총액

자료: Bloomberg

미국을 이끄는 힘, 글로벌 1위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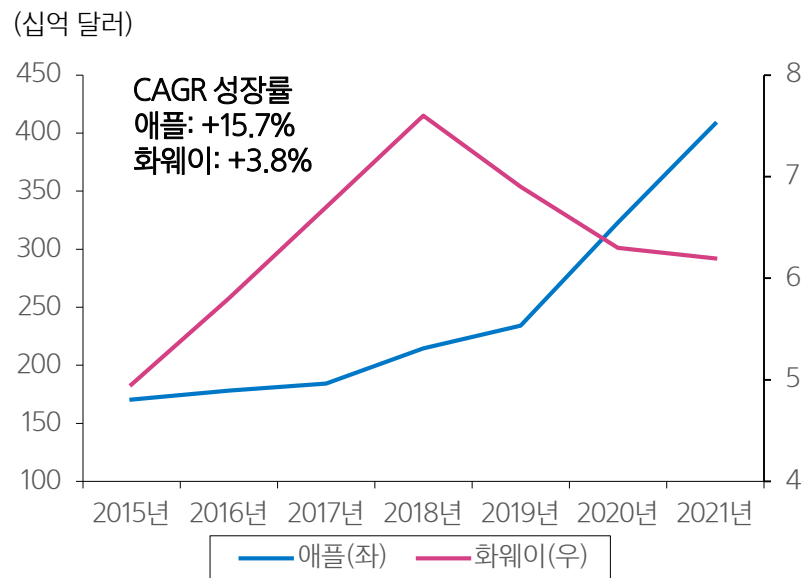
- 글로벌 top 500 브랜드 가치 → 2위 중국, 3위 유럽 BIG3(영프독)를 압도하는 미국 기업들
- 미중 양국을 대표하는 스마트폰 브랜드: 애플 vs 화웨이
→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회사의 브랜드 가치

글로벌 top500 브랜드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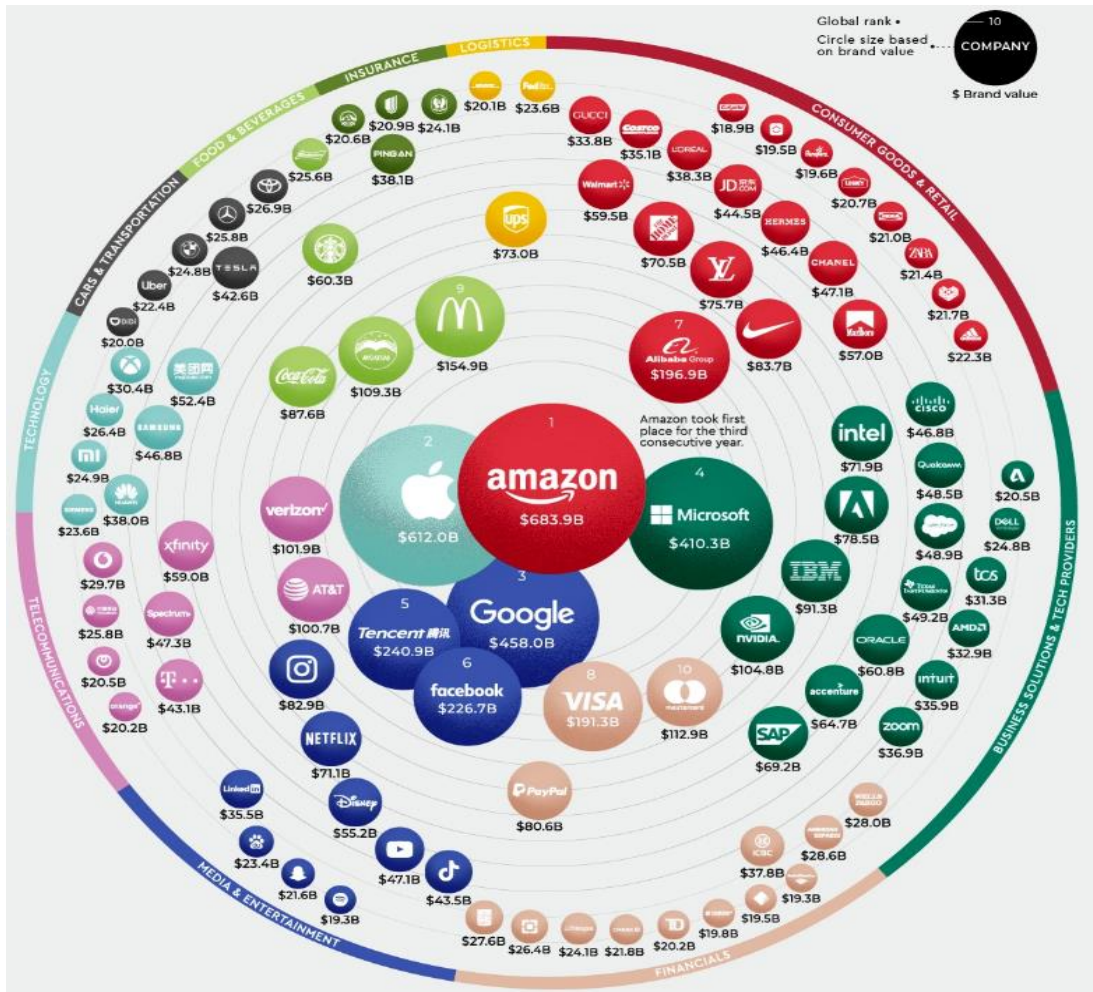
참고: 유럽 BIG 3 = 영국, 프랑스, 독일
자료: Brand Finance Global 500 Brand, 삼성증권

애플 vs 화웨이: 브랜드 가치 변화 추이



자료: Interbrand, 삼성증권

글로벌 브랜드 랭킹 100위 (2021년 기준)



30위 이내 국가별 순위

1위. 미국 25개

2위. 중국 3개
(귀주, 텐센트, 알리바바)

3위. 유럽 2개
(LVMH, SAP)

앞으로는 다를까요? - 제조업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

- IRA 법안의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글로벌 배터리기업들
→ 국내 배터리 3사는 물론, 테슬라까지 미국 공장의 배터리 생산 확대 움직임
- IRA의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공장 건설도 활발
→ 현대·기아차(24년~), GM/포드/폭스바겐 등도 전기차 공장의 미국 건설 계획

2차 전지 기업들의 미국행

Tesla changes battery strategy to seek U.S. tax breaks - WSJ

LG화학, 美 테네시주에 양극재 공장 짓는다...4조원 투자

포드와 손잡고 美에 배터리 공장...SK온 'IRA 장벽' 넘을 발판 마련

자료: 언론종합, 삼성증권

완성차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기아 “美 조지아 공장서 2024년부터 전기차 EV9 생산한다”

GM “25년까지 북미서 전기차 100만대 이상 생산”

포드 이어 폭스바겐도...美에 전기차 공장 검토

자료: 언론종합,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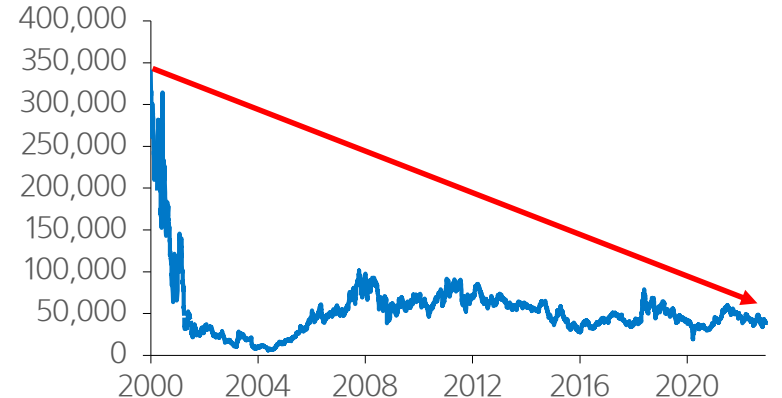
투자 심계명 - 막연한 장기투자는 정답은 아니다

한국 시장에서 지금까지 버텼다면?

한국전력: 최고점 대비 -69%



현대건설: 최고점 대비 -89%



신한지주: 최고점 대비 -41%



현대차: 최고점 대비 -39%



투자 심계명 - 막연한 장기투자는 정답은 아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마찬가지

Intel: 최고점 대비 -62%



General Electric: 최고점 대비 -82%



Ford: 최고점 대비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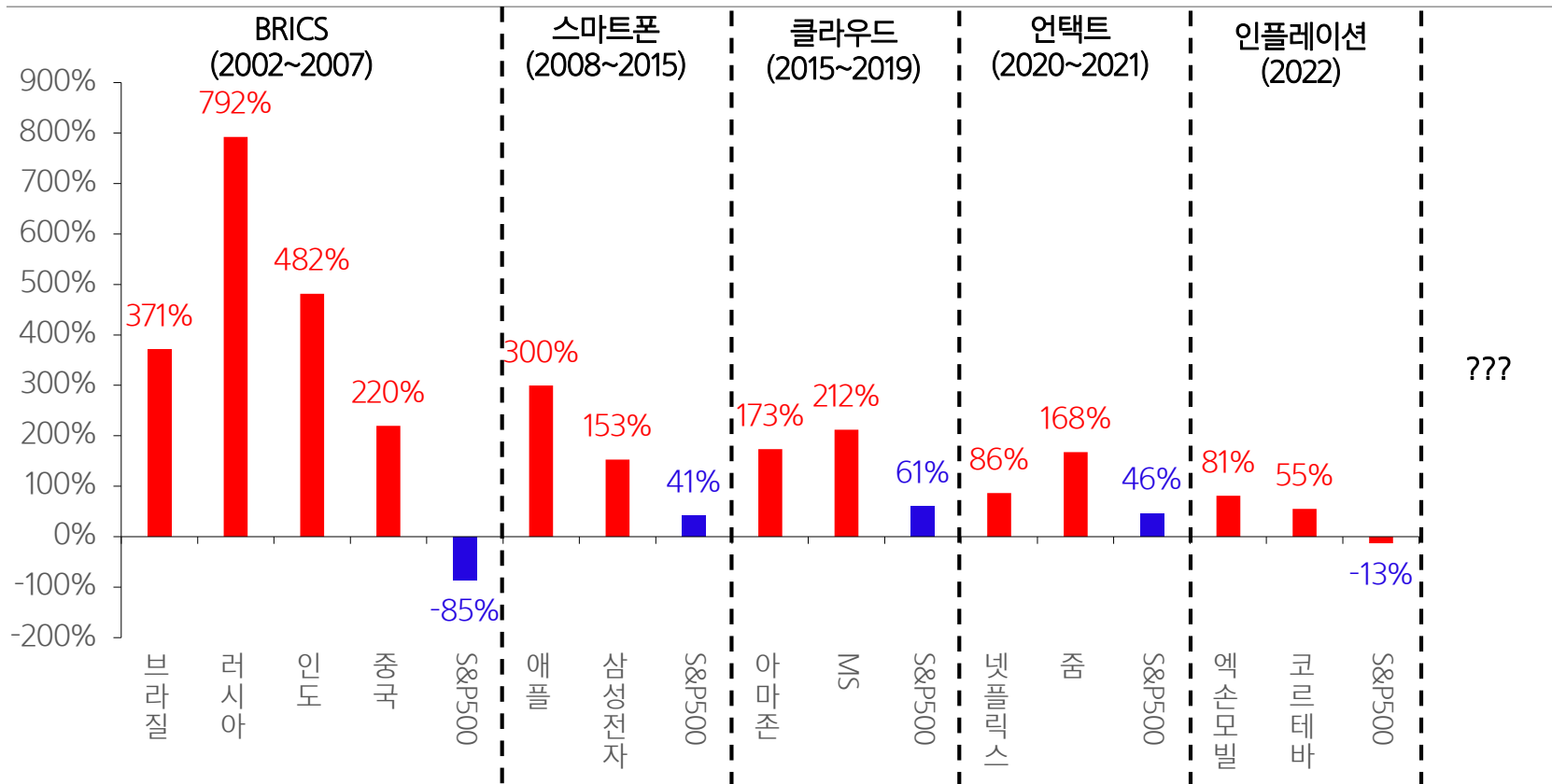
US Steel: 최고점 대비 -86%



투자 십계명 - 변화하는 시장, 투자에도 시대가 있다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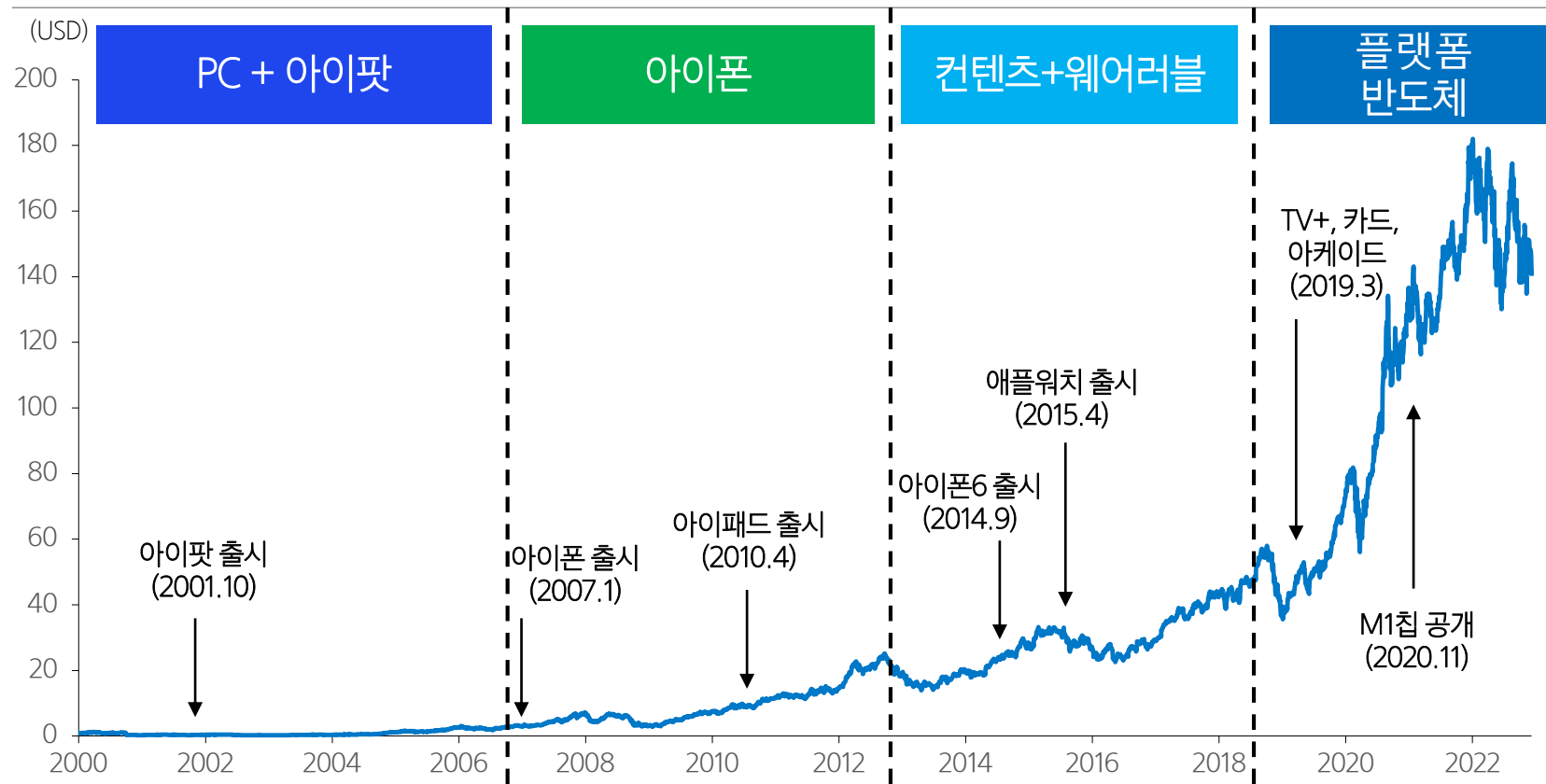
시대별 메가 트렌드의 수익률은 S&P500을 크게 상회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누가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까, 변신하는 기업: 애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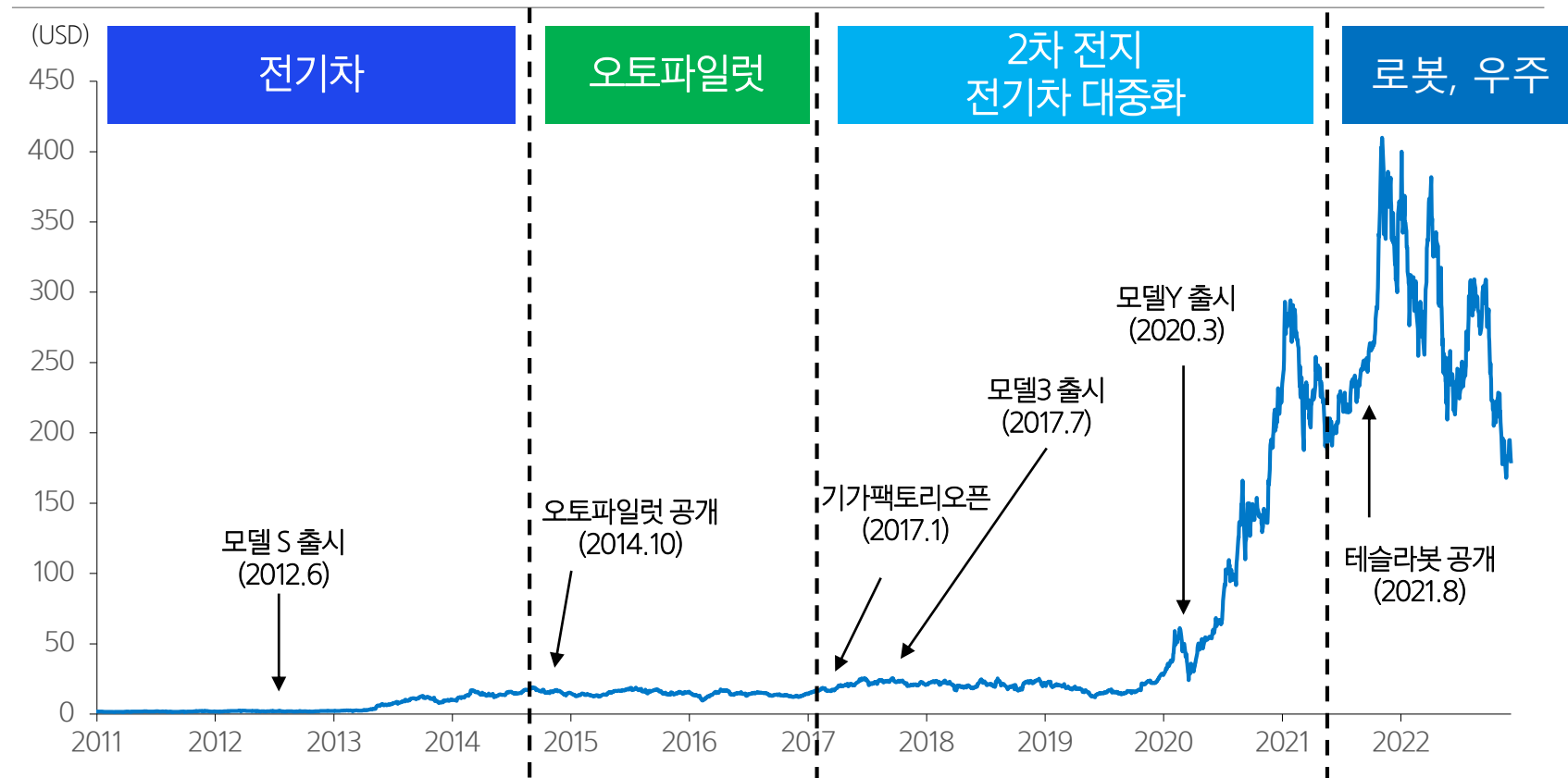
2000년 이후 애플의 변신 - 제조업에서 플랫폼 업체로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누가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까, 변신하는 기업: 테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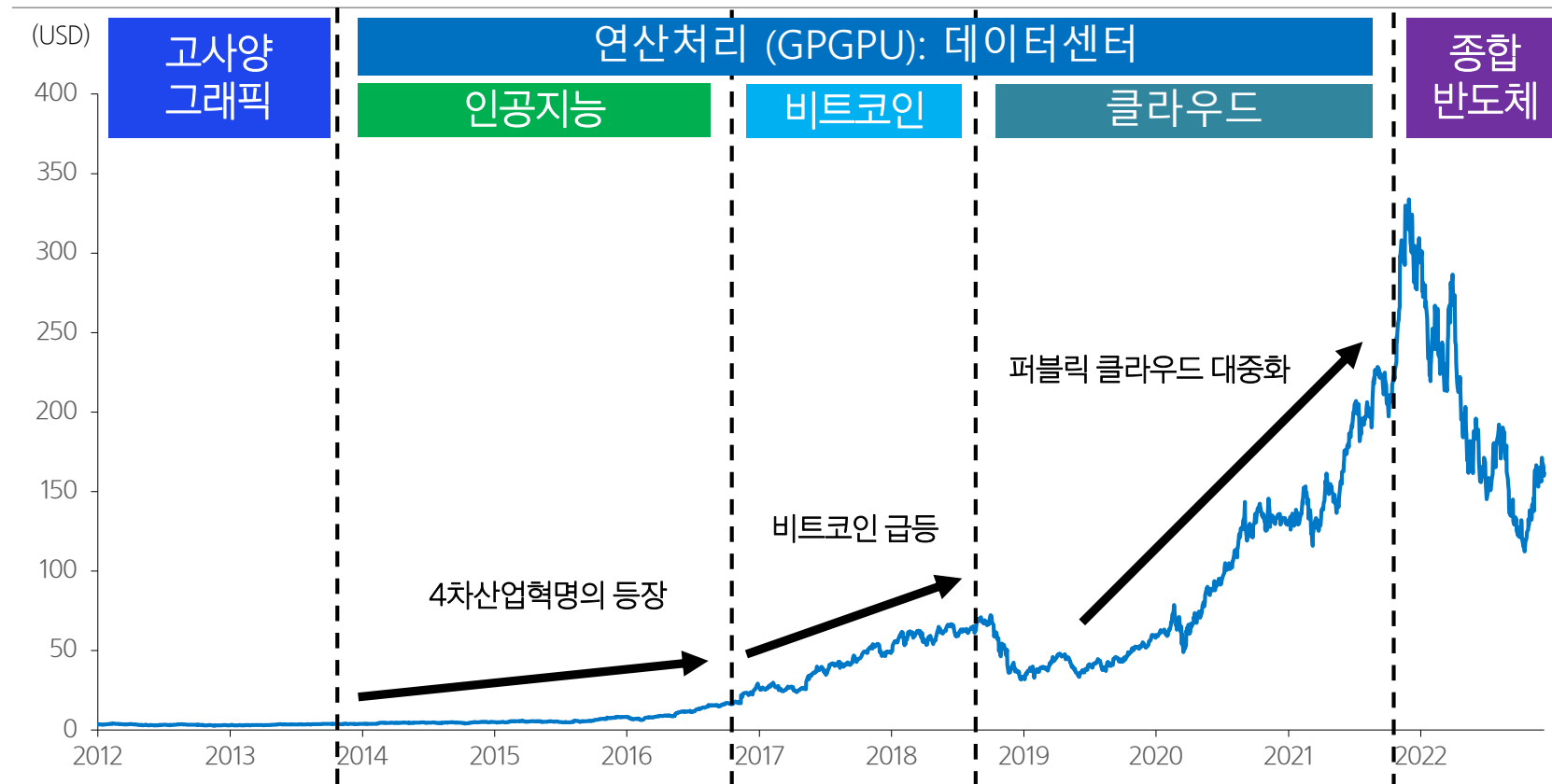
2011년 이후 테슬라의 변신 - 전기차 업체에서 친환경, 로봇 등 첨단 IT 기업으로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누가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까, 변신하는 기업: 엔비디아

2012년 이후 엔비디아의 변신 - 그래픽카드 업체에서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집중 투자는 위험, 특히 레버리지는 금물

- 단일 종목(테슬라 등), 레버리지 투자(TQQQ, FNGU 등)에 집중된 서학개미들의 매수 상위 종목
→ 최근 순매수 상위 종목 중 3개가 레버리지 ETF
- 특히 레버리지 ETF의 장기투자는 금물

국내 투자자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서학개미는 지금] '나스닥 상승'에 베팅한 서학개미...TQQQ 매수 1위

순위	종목명	순매수 금액
1	TQQQ (나스닥 3배 레버리지)	12,186만
2	테슬라	4,470만
3	아마존	2,118만
4	FNGU (FANG+ 인덱스 3배 레버리지)	1,493만
5	SOXS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3배 인버스)	1,324만

기간: 11월 3일 ~ 11월 9일, 단위: 달러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연초 TQQQ에 올인했다더라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내년 시장이 하락한다면? 금리로 헷지하세요!

- 단일 종목 or 레버리지 ETF에 대한 높은 투자 비중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
→ TLT(미국 장기국채(만기 20년+) ETF)등으로 헷지할 필요 필요

TLT 주가 S&P 500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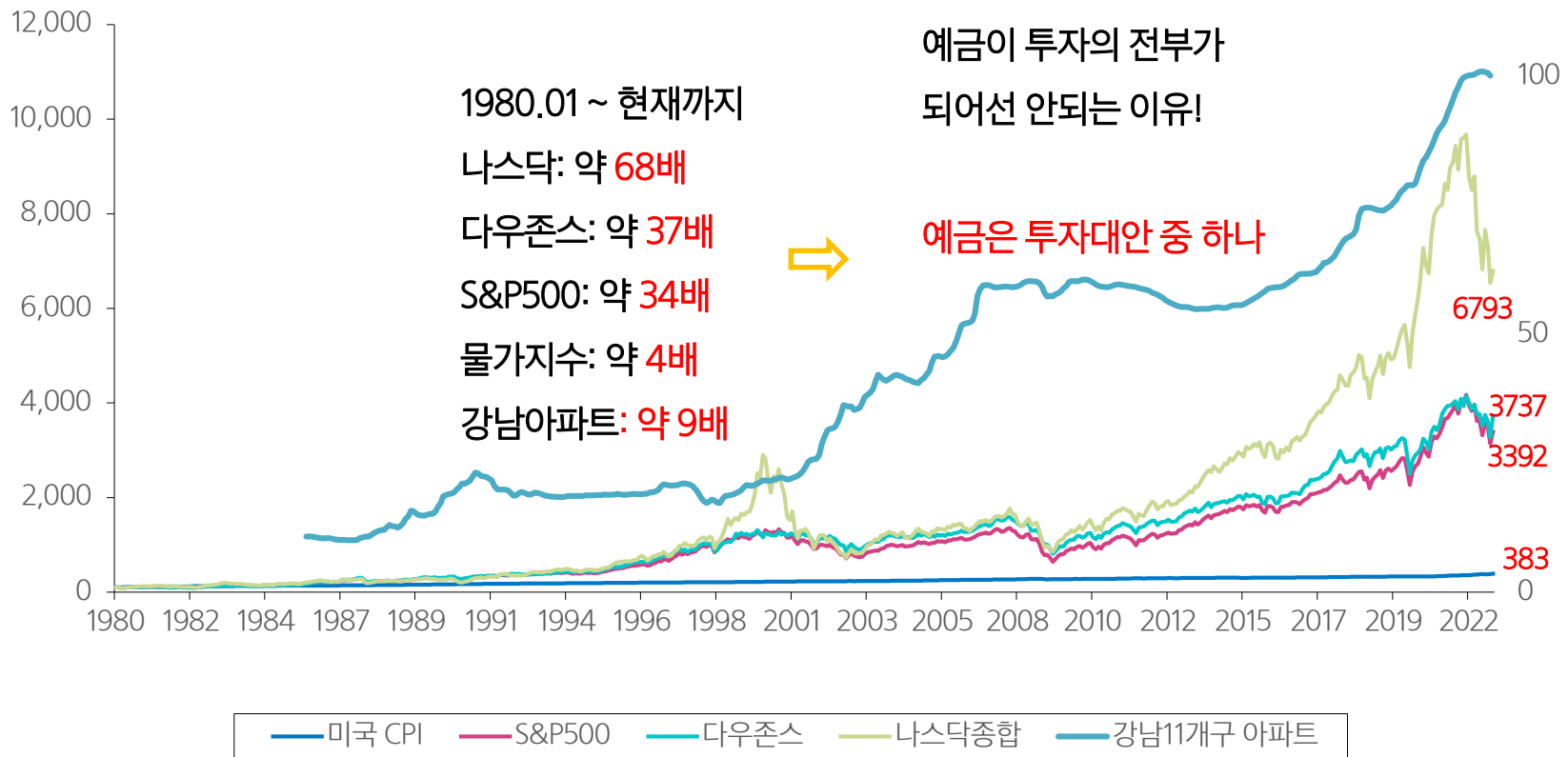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삼성증권

투자 십계명 - 투자의 세상에서 떠나선 안되는 이유!

투자 - 현대인에게 필수, 장기적으로 현금은 투자를 이길 수 없다

40년 간 4배가 오른 미국 물가, 주가지수는 몇십~수십 배 상승
40년 간 현금만 보유하고 있었다면...?



참고: 1980.01월=100, 1980.01 ~ 2022.10, 월간 단위 / 강남11개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2022.01월=100, 1986.01~2022.10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투자 십계명 - 비관론에 빠지지 말자

언제나 해결책은 있다

루비니 "스태그디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
도래"

"U자형 경기회복 이후 더블딥 가능성 높다" 경고

이승선 기자 | 2009-08-25 14:39:00 | 2009-08-25 14:20:00



금융위기 바닥에서 비관론을 외친 월가의 구루들



자료: Bloomberg, 언론종합, 삼성증권

투자 십계명 - 아무도 믿지 말자, 결국 투자는 자신의 몫
파월도 못 맞추는 매크로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상승의 인플레이션 효과는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1.08.27 잭슨홀 미팅)

투자 십계명 - 아무도 믿지 말자, 결국 투자는 자신의 몫
시시각각 바뀌는 FED, 믿을 수 있나요?

21년 잭슨홀
인플레 일시적임



22년 잭슨홀
금리 더 올려야함



22년 브루킹스
속도조절 할듯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12월 7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12월 7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